

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어떻게 돼가나

중지역경제 파급 효과

부품·협력업체들 광주공장 속속 건립

밤샘근무 폐지 겹쳐 일자리 크게 늘 듯
광주시 수출 150만달러 달성도 청신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증산은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지역 대표 건설사들의 잇단 퇴출 등으로 주름살이 깊어진 지역경제에 희망이 되고 있다. 청년 취업 등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 기업 유지, 협력업체 동반성장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전문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차체와 모듈·부품을 생산하는 코스피 등록기업으로

을 투자해 광주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가 광주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차량 생산을 62만대로 늘리기 때문이다. 늘어난 물량을 수도권에서 조달하기엔 물류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에 아예 광주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협력사들에게도 호재다.

출주도형 신차 RP(카렌스 후속)가 가세하면 지역 수출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수출 목표인 150억달러 달성도 기대할만하다는 예측이다. 광주공장 수출 물량의 70%를 소화하고 있는 목표신형 자동차 전용부두에 기아차 수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수출 물량의 70%를 수용하고 있는 목표신형 자동차 전용부두에 기아차 수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2300억원 투자 기아차 대표 공장으로는 연간 62만대 생산은 광주공장이 기아차의 대표 공장으로서 거듭날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62만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광주공장에 2300억원을 투자했다.

생산 확대는 경제발전의 초석인 고용 창출을 동반한다. 62만대 증산 관련 채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력 충원은 분명하다. 노사는 조만간 인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3월 생산인력 60여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경력자들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내년부터 62만대 증산체제를 가동하고, 3월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밤샘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 근무시간은 줄고 생산은 늘려야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협력업체들 광주로 = 기아차 주요 협력업체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로,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광주 진곡산단 자동차부품단지 300억원을 투자해 광주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250여명의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진다.

다이캐스팅 전문기업인 (주)지알랩은 30억원을 투자해 광주공장을 신설하고, 연구소 이전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내장재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주)하이분도 60억원을 투자하고, (주)일정과 (주)화성알텍, 지엔씨(유)도 각각 100억원, 60억원, 40억원

2010년 50만대 증산으로 매출을 크게 확대한 지역 협력업체들은 2년 만에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며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역 선도업체들의 중소기업 탄생도 기대된다.

◇수출 150억달러 탄력 = 수출 증대 등 경제지표 상승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동차가 지역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출주력 차종인 스포츠와 스포터지르의 증산에 이어 수

기아차는 수출 선적물량을 최고 80%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62만대 증산 프로젝트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세계 일류 자동차 생산기지로 도약을, 지역에는 고용 창출 등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일거양득의 기회"라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사는 물론 지역민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7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기아자동차·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광주지역 대기업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제2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가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6곳

“납품물량 줄어...경영상태 어렵다”

광주·전남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9곳은 “경기상황이 위기”이고, 이 중 6곳은 “실제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27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발표한 ‘2012년 3분기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여조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는 기아자동차·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LG이노텍 등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협력업체 10곳 중 9곳(91.0%)은 ‘경기상황이 위기’라고 응답했다.

또 6곳(59.0%)은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대기업 납품물량 감소’(65.

0%),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구인난’(40.0%), ‘내수경기 침체’(25.0%) 등을 꼽았다.

특히, 납품 물량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경영악화 주범으로 물량감소를 꼽은 협력업체 비중이 올해 1분기 50.0%에서 2분기 57.7%, 3분기 65.0%로 급증한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상재 나영산업 부사장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하지만 글로벌경기 악화로 대기업들이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찬고 중앙감찰 대표도 “중소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는데 물량 확보가 불안정해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기업 물

량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물량 감소에 따라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91.7%는 올해 3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6%는 20% 이상, 5.4%는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경영위기 극복 방안으로 68.4%가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거래처 다변화’(55.1%), ‘대기업 물량 증대 요구’(13.3%) 등을 들었다.

협력업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대기업 유치 및 지원 확대’(63.3%)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56.1%), ‘자동차·가전 중심의 지역산업 다변화’(23.5%),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확대’(17.3%) 등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프랜차이즈 ‘매출 킹’ 브랜드는?

빵집-파리바게뜨
편의점-GS25
치킨-교촌치킨

의 매출이 푸레쥬르보다 1.8배 가량 더 많았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3095개 가맹점의 하루평균 매출은 189만원(연 6억9000만원)으로 푸레쥬르의 108만원(연 3억9000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편의점중에서는 GS25 점포의 매출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GS25의 전국 6202개 가맹점의 하루평균매출은 143만원, CU(옛 웨미아마트) 6544개 가맹점은 139만원, 미니ストップ 1641개 가맹점은 136만원 순이었다.

치킨체인점의 하루평균 매출은 교촌치킨 7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환뉴스

광주상의 태국투자설명회
오늘 라마다플라자호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식)는 한-아세안센터, 태국투자청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2012 태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태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무역 증대, 투자 촉진 및 경제인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자동차·기계·광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태국의 사업 환경과 투자 정책, 태국법인 설립 방법, 태국 진출 경험 공유 등이 진행된다. 또 태국 바이어와 지역 기업간 비즈니스 상담도 이뤄진다.

문의, 광주상의 기획진흥부 062-350-586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단속 건설협회 16개 시도회 신고센터

대한건설협회는 27일부터 본회와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해 건설업등록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에 관한 신고와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권익위에 이첩할 계획

이다. 이첩한 불법 행위는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하게 된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불법대여 혐의자가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최고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협회는 또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업체의 건축물 착공 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과도하게 착공 신고한 업체를 적발해 관련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연환뉴스

▲ 코스피지수	1925.20 (+16.69)
▼ 코스닥지수	493.63 (-2.61)
▲ 금리 (국고채 3년)	2.84% (+0.02)
▼ 원·달러 환율	1084.10원 (-1.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안전보건의 기본입니다

**2013년도
위험성평가가 본격 시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 산재 보험료 15% 감면(제조업 50명 미만 한함)
- ▶ 정부감독 면제
- ▶ 정부포상 우선추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더 행복하게!

경제적 이익

- 재해 손실비용 최소화
- 재해위험 투자로 예산 감소

더 안전하게!

인정사업장의 혜택

- 산재보험료 절감
- 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
- 정부포상 우선추천

더 건강하게!

재해예방·감소에 따른 부대효과

-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
-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
- 기업 인지도 상승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함

●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

인정 신청

현장 심사

인정 결정

인정

사후 관리

참여신청·문의(Tel)

안전보건공단 : 서울지역본부(02)828-1632
 부산지역본부(051)520-0529
 대구지역본부(053)609-0524
 울산지역본부(052)226-0523
 전남지역본부(061)689-4953

서울북부지도원(02)3783-8311
 경기남부지도원(031)259-7127
 경기북부지도원(031)828-1913
 충북지도원(043)230-7124
 경남동부지도원(055)371-7521
 경북동부지도원(054)271-2031
 광주지역본부(062)949-8776
 제주지도원(064)797-7502

경인지역본부(032)570-7253
 경기서부지도원(031)481-7516
 강원지도원(033)815-1011
 충남지도원(041)570-3423
 경남지도원(055)269-0563
 경북북부지도원(054)478-8011
 전북지도원(063)240-8532

※관련홈페이지 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